



미 증시, 물가 불안 및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19 일(수) 미국 증시는 영국, 유로존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안이 상존한 가운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등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2거래일 연속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하면서 하락 마감 (다우 -0.33%, S&P500 -0.67%, 나스닥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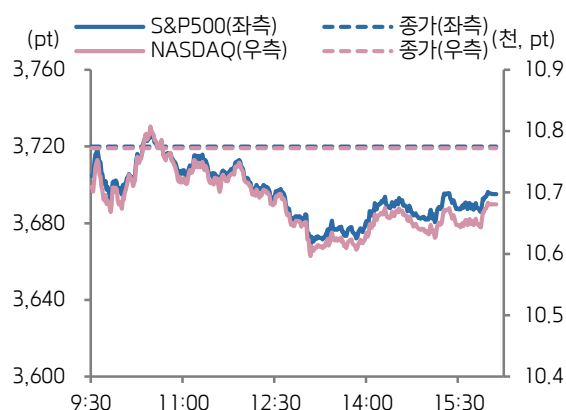
전일 발표된 영국 9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0.1%(예상 10.0%, 전월 9.9%) 상승, 유로존 9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9.9%(예상 10.0%, 전월 9.1%) 상승 기록. 물가 부담 확대되며 장중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4.54%까지 상승, 10년물 금리도 장중 4.12%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한편, 미국 9 월 주택착공건수는 전월대비 -8.1%(예상 -7.2%, 전월 13.7%) 하락. 건축허가건수는 전월대비 1.4%(예상 -0.8%, 전월-8.5%) 상승.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준 금리를 4.75%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물가 급등세가 고점에 도달했을 수 있지만, 근원 물가와 서비스 물가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과소평가할 위험이 과잉대응할 위험보다 더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안정의지를 강조.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에 의미 있는 하방 압력을 가하려면 벤치마크 금리가 최대 4.5~4.75%까지 올라야 한다"고 언급.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에는 지난달 보고서 발표 이후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확장했다고 평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완화됐지만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한편, 일부 지역에서 기업이 임금 지불 대상을 늘리는 일을 주저하는 등 노동 수요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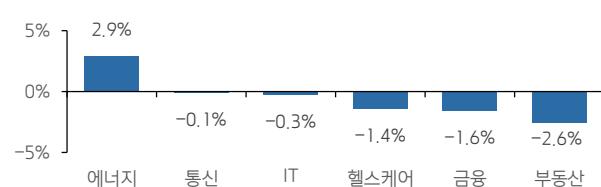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2.9%)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2.6%), 금융(-1.6%), 헬스케어(-1.4%)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에도 주간 원유재고가 감소하며 유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 중심 강세.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0.84%)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양호한 3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매출 컨센서스 하회, 트위터 인수 딜을 위한 일론 머스크의 추가적인 지분 매도 가능성에 시간외로 3.6%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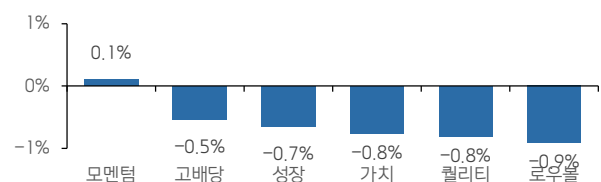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695.16	-0.67%	USD/KRW	1,426.46	+0.27%
NASDAQ	10,680.51	-0.85%	달러 지수	112.88	+0.67%
다우	30,423.81	-0.33%	EUR/USD	.98	+0.01%
VIX	30.76	+0.85%	USD/CNH	7.27	+0.02%
러셀 2000	1,725.76	-1.72%	USD/JPY	149.86	-0.03%
필라. 반도체	2,237.74	+0.7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2,755.16	-1.69%	국고채 3년	4.336	+8.6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405	+11.8bp
Eurostoxx50	3,471.24	+0.21%	미국 국채 2년	4.556	+12.8bp
MSCI 전세계 지수	565.21	-0.84%	미국 국채 10년	4.134	+12.7bp
MSCI DM 지수	2,439.30	-0.7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65.91	-1.5%	WTI	85.55	+3.3%
MSCI 한국 ETF	49.55	-1.29%	금	1634.2	-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8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43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최근 단기 반등에 따른 일부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2. 테슬라 시간외 주가 하락이 국내 전기차 밸류체인주에 미치는 영향
3. 코스피에서 13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수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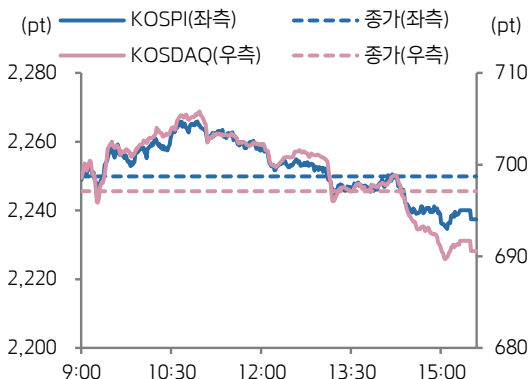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연준발 정책 악재로 하방압력을 맞아왔던 주식시장이긴 하지만, 19 일 연준 내 대표 매파성향 인사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준은 주식시장에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해당 총재 포함 일부 연준 위원들은 증시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시사. 비둘기 성향 인사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조차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에 진전이 없다면 금리인상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하는 등 연준 내부적으로 정책 성향의 균형이 매파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 이로 인해 연말 기준금리 상단에 대한 컨센서스가 4.75%(CME Fedwatch 확률 상 74%대)로 형성된 만큼 11 월과 12 월 FOMC 에도 연속적인 75bp 인상을 대비해야하는 것으로 판단.

여기서 생각해야할 점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전망은 악재가 맞긴 하지만, 9 월 미 CPI 쇼크에도 증시는 오히려 바닥 다지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이미 주가 상으로는 상당부분 이를 반영해왔다는 것. 더 나아가, 연준의 기존 정책 결정 성향이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가운데, 19 일 공개된 연준의 경기동향보고서인 10 월 베이지북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언급이 13 회 등장했다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9 월에는 10 회). 이는 연준 내부적으로도 고 인플레 및 긴축에 따른 미국 경기 훼손 우려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 미국 뿐만 아니라 유로존, 영국 등 전세계 고물가 불안은 이른 시일 내 소멸되기는 어려운 것은 맞음. 하지만 글로벌 공급난 상황이 2020 년 말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뉴욕 연은 글로벌 공급난 지수 1.05pt 로 2020 년 11 월 이후 최저 수준), 긴축 강도, 긴축 종료 시점 등 중앙은행의 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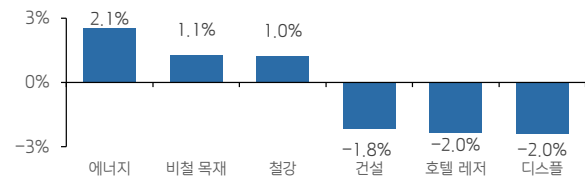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1% 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영국 CPI 불안 및 기관과 개인의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9%). 금일에도 최근 단기 반등에 따른 포지션 청산 물량 유입 속 미국 증시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이면서 업종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전망. 이와 관련해 장 마감 후 테슬라(+0.8%)가 양호한 순이익에도 차량 인도 부진 등으로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3%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2 차전지 등 국내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 반면 호실적을 기록한 ASML(+6.3%)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0.7%)가 상승했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포함 관련 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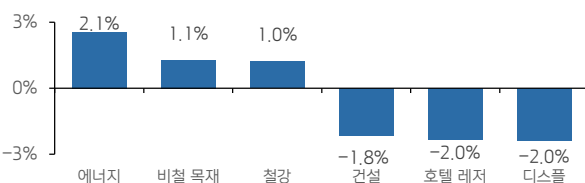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